

# 2018년 7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8.7.26.(목) 오전 10:30

## ■ 주요 회의 내용

### ▲ 보도의 정확성, 심층성, 객관성 등 제고

- 7.1 아침 '명품리포트 맥' 방송에서 경제분야 보도 앵커는 포스코의 새로운 CEO 선출에 관해 보도하면서 "내부 출신이지만 지방대 출신 인사"가 선출되었다고 하면서, "세계 우수 철강기업인 포스코 CEO가 정치권의 전리품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시청자로서는 정치권의 영향으로 지방대 출신이 선출되었다는 뜻인지, 또는 지방대 출신이 선출되었으므로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해석이 어려운 코멘트였음(오준 위원장)
- 경제정책 현안 논쟁에서 일방의 프레임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함. 고용 추세 하락, 실업자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통계해석 관련 고용추세만 부각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실상을 부각하고 있음. 이와 함께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 카드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 등 문제점 분석과 관련 법안 통과, 지원 대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복지 대책 등 중장기 정책방향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함(권영후 부위원장)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사람들의 난민 허용 문제를 두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 반대하는 이들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때론 무지에서 비롯된 맹목적인 혐오의 감정이나 정치적 악용 의도가 섞여 있는 것도 무시할 순 없음. '무국적자 코치의 희생과 헌신'은 이런 무지와 불안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했음. 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시사점을 보도에서 언급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임(곽병찬 위원)
- 최근 핫뉴스는 폭염임. 1994년 기록한 서울 최고 기온도 같아치웠음. 더 끔찍한 것은 그런 폭염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한 달 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연합뉴스tv만큼 이와 관련해 현상, 표정, 원인, 전망을 자주 보도한 매체는 없을 것임. 아쉬운 것은 자주 많이 보도에 접해도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사실임. 얼마나 덥고, 이것이 일상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고 싶지만, 시청자들의 심정은 '도대체 왜 이렇게 더운지나 제대로 알고 덤자'는 마음 아닐까 싶음. 단편적으로 티벳에서 밀려온 고기압과 남태평양에서 밀려온 고기압에 한반도 상공에서 부딪혀 열돔을 만들었다는 분석은 수도 없이 들었음.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런 열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다른 지역에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열돔 현상과 기후온난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태풍은 왜 중국 남부로만 비껴가는지 등을 알고 싶은 것임. 아울러 폭염이 닥치면 상투적으로 '피서' 보도를 하는데, 사실 피서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

는 사람이 많으며, 대부분 길어야 1주일, 보통 3~4일만 피서를 떠남. 폭염 속에서 살아야 함. 이런 이들에게 위로도 주고, 폭염 극복의 의지를 주는 것은 폭염 속에서 폭염과 맞서 싸우며 이웃에 헌신하는 이들임. 뉴시스 22일 폭염 속에서 화재와 싸우는 소방관에 대한 기사를 배포했음. 일부 매체에서 이를 받아썼지만, 연합뉴스tv에선 이를 외면한 것 같음. 이 기사는 최고의 공감뉴스 가운데 하나로 꼽혔음. 소방관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이중 삼중의 폭염 속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임. 그런 분들을 자주 소개해 폭염 극복 의지를 북돋워주기를 기대함 (곽병찬 위원)

- 요즘 폭염이 특히 우려되는 것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서 장기간 계속된다는 것임. 이로 말미암아 우려되는 것은 우선 전력 사정일 것이고, 두 번째는 가뭄일 것임. 전력 문제는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심각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음. 심각한 블랙다운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임. 민생은 물론 산업, 정치 전반에 재앙을 초래함. 현재 전력예비율이 어떠한지, 앞으로 전력소비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력소비가 최고점에 이를 때는 언제 어느 정도일 것인지 분석, 전망해주고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안은 없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임. 연합뉴스tv가 상업방송이 아니라 공익뉴스채널이라면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음. 아직 제대로 된 보도를 보지 못했음. 가뭄도 마찬가지. 7주일 정도 이대로 계속된다면 곳곳에서 물부족 난리가 벌어질 것 같음. 미리 경보도 올리고 대책도 촉구해야 할 것 같음(곽병찬 위원)
- 최저임금 관련 내용에서 7.14 내년도 인상률 확정된 날 연합뉴스tv는 “고용쇼크 우려, 궤도 수정” “경제계 반발, 소상공인 불복종운동” “노동계 노동자에 희망 못 줘” 등 몇 가지 관련 기사를 보도했음. 현상을 전달해주는 기사였지만, 비판적인 톤을 유지했음. 시각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좀 더 깊은 취재와 반성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당장 내가 일하는 일터의 시급은 얼마인지부터 따져보면 어땠을까 싶음. 여기에서 시작해 우리나라 중견 기업 간부(부장, 혹은 이사 이상)들의 총임금은 얼마나 되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 대기업만 특정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임. 편의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을 때도 가맹본점 정규직 사원의 시급은 얼마나 되며, 간부들의 평균 시급, 이사 등 경영진의 총임금과 시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최근 10년간 변화를 함께 보여주었다면 좋았을 것임. 가맹본부의 수익과 가맹점의 수익의 변화도 좋은 자료가 될 것임. 양쪽의 충돌을 부추기자는 것이 아님.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인정한대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소득의 양극화’ 현상에서 비롯된 것임. 양극화 문제는 빈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떠나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추락시키고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 이 와중에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매달 월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혹자는 임금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시장은

-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지 못하며, 시정할 생각도 못 함. 공적인 기구가 공적인 권력을 통해 시정할 수밖에 없음. 오뉴월 복날 개처럼 두들겨 맞듯이 몰매를 당하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따져보는 자세가 아쉬움(곽병찬 위원)
- 최근 어린이집 사고 등과 관련한 보도에서, 통학차 기사와 안전의식이나 보육교사의 행태 등 큰 관심사항으로 다루어졌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보도나 전문가 토론 등이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았나 싶음. 그동안 여러 차례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반복적으로 사고 등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보도와 대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봄(김석민 위원)
  - 이번 달에는 유독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관련된 사고들이 많았음. 뉴스워치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민안전위한 치료대책을 자세히 다룬 것도 좋았고,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한 퇴원후 외래 치료명령제 강화를 자세히 보도한 것도 좋았음. 하지만 “버스 안 조울증 여성 칼부림”,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조현병 아들”, “40대 조현병 남성 흥기 난동, 경찰관 2명 사상”, “조현병 치료 중 병원 탈주 40대 살인 전과자 검거” 등 사건 사고 위주로 보도하게 되면 시청자들이 정신장애나 정신장애인에 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는 다시 정신장애를 숨기면서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보도와 더불어 치료를 받으면 안전하다든지, 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안내한다든지,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보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같이 보도하면 더 좋을 것 같음(하규섭 위원)
  - 여고생 2명 아파트 옥상서 동반 투신 사망 내용에서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 ‘자살’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잘 한 것이지만, 이런 내용의 자살 관련 보도는 아예 안하는 것이 자살 예방에 더 도움이 됨. 굳이 하려거든 자살 예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내보내는 것이 좋음. ‘자살 시도 10명중 3명 이상 한번 이상 시도’도 마찬가지. 이왕이면 자살 예방 관련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더 좋았겠음(하규섭 위원)
  - 폭염대책, 전력난 가중 과장보도에 유의해야함. 원전 재가동 관련 원전 폐기정책 우려라고 보도에서 지난 4월에 수립된 전력 수급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논란 초래함. 언론의 신중하지 못한 보도로 전력사정을 과장 왜곡할 수 있음(권영후 부위원장)
  - 연합뉴스TV의 특성 상 지속적으로 뉴스를 반복 방송해야 하는 데에서 오는 속보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듯.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보도시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은 자막으로는 매우 신속하게 보도되었으나 앵커의 멘트는 타 방송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지체가 있었음. 또한 취재 기자가 특검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는 도식적이고 구태의연해 보였음. 그

보도는 왜 기각되었는지 기각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뭔지를 실시간 취재해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최신용 위원)

#### ▲ 보도의 균형, 반복보도 등 주의

- 우리 언론의 부적절하고 후진적 보도 관행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이 있는 외교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입장만 보도하는 것임. 특히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한 보도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처럼 최소한의 균형감도 없이 보도하는 것임. 7월 10일,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방문 보도에서 그런 관행이 확인됨.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 직후 리포트에서는 양국정상의 기자회견 모습이 비춰지면서 기자 리포트가 나오는데 내용중에 문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이 3번 인용됨. 그러나 모디 총리의 발언은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다.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한번이라도 인도정상의 발언을 싱크 처리했어야 함. 같은 시간 다른 방송 보도를 찾아보니 그렇게 처리했음(배정근 위원)
- 정부 정책방향 발표 관련 성장, 고용목표치를 낮춘 것을 부각함. 근로자, 자영업자 대상 근로 장려금(EITC)의 대상과 지원 확대 방안과 장년층 소득 지원 대책을 소홀히 다룬 것으로 생각됨. 경제가 어렵고 비관적이라는 지적만 눈에 보임(권영후 부위원장)
- 7.16-17 이틀 동안에 “생닭 손질 잘 해야 식중독 예방” 제하의 뉴스를 여러 번 방송하였는데, 시기적으로 7.17 초복을 앞둔 시의성 있는 보도임을 감안하더라도,, 이틀에 걸쳐 계속 같은 뉴스 보도를 방송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인상을 줌(오준 위원장)
- 안희정 재판 가해자 측 증언 공개, 2차 피해가 우려됨. 피해자 증언은 보호된 반면, 가해자 측 증언은 공개됨. 피해자 유발론, 여론 재판 가능성 감안 신중한 보도가 요구됨(권영후 부위원장)

#### ▲ 화면구성, 자막, 표현 등 개선 필요

- 연합뉴스TV의 상징색으로 오렌지색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와 어울리는 보색으로 은색, 회색 등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구성이 지나치게 밝고 가볍게 보일 때가 있어서, 색상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좀 더 무겁고 깊이 있는 보색의 사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오준 위원장)
- 7.9 아침 라이브투데이 뉴스 방송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관해 보도하였는데, 자막 제목을 “대법원의 허울뿐인 수사 협조”라고 붙임으로써 대법원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취재된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하였는데, 실제 보도 내용은 컴퓨터 디가우징 조치가 대법원장 교체시의 통상적인 절차라는 대법원의 설명이 불확실하다고만 보도함으로써 자막 제목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줌(오준 위원장)

- 모닝와이드 사건 보도시 복지시설원장, 악덕선주, 피해자 등의 표현을 a씨 b씨 등으로 표현했는데 취재가 이루어진 내용으로 볼 때 당사자들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영문 약자로 지칭하는 것 보다는 김씨, 이씨 등으로 특정하여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최신용 위원)
- 자막의 표현 관련, 어휘의 선택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예로 감사원 발표 보도시 "4대강 극악 경제성"은 제목의 강조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닌가 싶음(김석민 위원)
- 정치인의 투신 사망 관련하여 깊은 애도가 있음. 생전에 훌륭한 업적을 보도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자살 관련 인터뷰 등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까"하는 표현 등을 내보내는 것은 일부 시청자가 투신 사망 혹은 자살이라는 행동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자살 예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음(하규섭 위원)

#### ▲ 프로그램 제작, 편성 의견

- 7월 9일자 뉴스19에서 뉴스 메이커로 성추행 장성, 조현병 살인, 그리고 태국 소년 구조 사례를 들었는데 이러한 사건 사고를 뉴스 메이커로 표현하는 것은 일상적인 표현법하고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뉴스 메이커라고 하면 일반 시청자들은 선행이나 미담의 주인공을 상상하는데 성추행을 자행한 육군 장성이나 우울증을 앓던 환자가 친족을 살해한 사건을 뉴스 메이커라고 따로 강조하는 것은 그 보도의 깊이나 심각성을 감안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음. 오히려 동굴 안에 갇혀 있는 태국의 청소년들을 구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잠수사나 구조대원들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그들을 무사히 구조한 것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담 사례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최신용 위원)
- 뉴스 투나잇 1부, 2부로 편성하는 것이 단순한 시간 상 배열인지 아니면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지 구체적 실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음. 1부와 2부의 내용상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동일 뉴스의 반복 방송을 염두에 둘 때 1부와 2부의 내용을 차별화하거나 더 다양하게 확대하는 건 어떨지? 뉴스 전문방송이지만 뉴스 시간대 별 차별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특히 국제 뉴스는 국내 뉴스와 구분, 고정 시간대에 편성하면 어떨지 함(최신용 위원)
- 연속 기획 아기는 우리의 희망 '애 키우기 좋은 환경부터'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시의적절한 보도라고 생각함. 7.21 방송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삼석 한양대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잘 준비되었다고 보며, 계속 깊이 있게 다루어지기를 기대함. 더불어 고령사회 대책도 다루어졌으면 좋겠음. 특히 저소득 노인층의 대책(빈곤, 의료, 자살, 세대간 갈등 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김석민 위원)
- 우리 연합뉴스티브의 프로그램 포맷이 너무 단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음.

조금 포맷을 달리하거나 재미있게 해보는 게 어떨까 싶었음,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jtbc 정치부회의와 같은 포맷으로 아나운서 한명과 기자들로 구성된 시사 정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다가 기자들이 모두 싫다고 해서 안되었다고 하던데, 사실이 맞는지 궁금함?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자들이 왜 싫다고 했는지, 또 그 이후 어떤 식의 후속 대책이나 다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보도전문 채널이라 하더라도 같은 정보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전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함(노영희 위원)

- 정보가 적었고 객관적이고 사실 위주의 정보를 주지 않던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청자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음. 좀 더 색다른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YTN이 파업 이후 뉴스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실제 사건의 중심인물들을 중심으로 현장 인터뷰 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음. 특히, CBS 아침 방송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이슈가 되는 사람들을 잘 섭외해서 아침에 인터뷰를 많이 하고, 이 인터뷰 내용이 늘 다른 방송에서 인용되고 국민들에게 많이 읽힐 정도로 인기가 좋음. 우리도 그런 식의 진짜 필요한 인터뷰나 생생한 현장 정보 등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음(노영희 위원)

#### ▲ 출연자, 앵커, 작가 관련 의견

- 기사 작성 시 전문가 출연 편향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중요 이슈에 대한 논평에 동일 전문가 반복 출연으로 다양한 시각 실종, 일방의 프레임 고착이 우려됨(권영후 부위원장)
- 지난, 6월 21일 아침 8시 8분경 박원순 시장에 대한 보도를 하던 중 음량이 갑자기 커지면서 시청자 입장에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음(노영희 위원)
- 앵커의 화제제기 부분과 기자 리포팅 중복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앵커가 너무 많은 얘기하다 보니 읽는 느낌. 생동감 결여 등 유발하고 기자에게 유보해 놓고 앵커는 관심 유발 톤으로.. 좀 더 천천히 인토네이션 섞어서 진행하면 좋을 것(이경상 위원)
- 앵커가 리포팅까지 하는 사례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 남아 있는데.. 완전히 없으면 함. 연합뉴스TV는 뉴스전문이라는데 앵커가 리포팅까지 하네. 후지네 하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앵커가 리포팅까지 해야 할 보도거리들을 모아서 말미에 포토뉴스처럼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함(이경상 위원)
- 앵커가 화제 던지는 방식이 너무 단조로움. 읽는 느낌. 작가가 스크립트를 너무 많은 말 많이 하게 만든 때문. 1/3만 줄여도 훨씬 경쾌해질 것. 시청자들은 무슨 내용인지 다 짐작함. 뭘까 약간 의아한 부분 있어도 기자가 상세하게 설명 하니까 오히려 시청하면서 의문점 해결하는 충족감이 듦, 작가를 바꿔서라도.. 좀 더 생동감 있게 할 필요가 있음(이경상 위원)

### ▲ 긍정 및 기타 의견

- 7.12 뉴스스탠드<동굴 소년 끝까지 지킨 코치는 무국적 난민… 맨유 구장 못가>내용에서 동굴에 고립된 소년 축구단 코치가 무국적 난민이란 사실이 연합뉴스 태국발로 보도됐음. 연합뉴스tv는 이 사실을 주요 뉴스 타임에 비중 있게 보도했음. 네이버 뉴스에선 뉴스스탠드 표제 화면에 편집해 올렸음. 다른 매체들도 보도하긴 했지만 그만큼 비중을 실지는 않았음. 돋보이는 기사 판단이었음(곽병찬 위원)
- 뉴스 내용과 관련해서 전문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좋았음. 북한 경제개발과 관련, 미국이 베트남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뉴스에서 자료화면과 함께 베트남에 대해 역사적으로 진행된 것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됨. 특히 현지 특파원이 잘 준비해서 보도한 것이 돋보였음.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보도에서 법사위원회와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것도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여짐(김석민 위원)
- 고, 7월 11일 640 아침 방송 시간에 여성 앵커의 입술 화장이 너무 이상하게 되어 입술 주변에 이물질이 묻은 것처럼 보였음. 아침에 출근을 위해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상당히 불쾌했고, 그 느낌이 오래가서 이런 종류의 문제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었음(노영희 위원)

(끝).